

활기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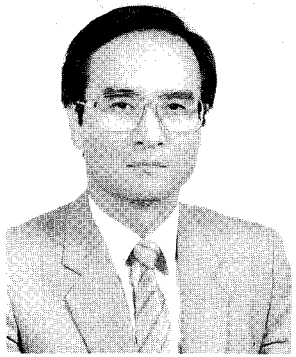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漁港消息

발행경원 孫井植 特務 韓國漁港協會
편집인 金在克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05-9
ISSN 1227-7053 TEL. 568-6651~2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568-5595~6
FAX. 568-6653

漁港을 어촌지역 經濟圈 中心地로 육성 어업인 福祉增進 살기좋은 漁村을 건설

趙正濟 제2대 해양수산부장관 취임식서 밝혀



趙正濟 신임 해양수산부장관

정부는 지난 8월6일 제2대 해양수산부장관에 조정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을 임명했다.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현재 해양수산 관련산업은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시장 완전개방과 해운경기침체 및 동북아 물류기지 선점을 위한 항만간 치열한 경쟁으로 우리의 해양산업 발전여건이 어렵다』고 지적,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해양중심국가가 되려면 모두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과감한 자기혁신과 함께 가치를 실현하는 뚜렷한 목표의식과 실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화와 조기정착을 추진하고 연안해운의 구조조정과 활성화 △해양생태계 파괴 및 연안어장을 황폐화시키는 해양오염 등 재난사고 예방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해양환경을 보전 △도시민의 관광 레저수요를 어촌으로 흡수하고 어항을 어촌지역 경제권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어촌의 다기능화를 추진함으로써 어업인 복지증진 및 살기좋은 어촌을 건설 △개방화 시대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업구조조정 및 환경친화적인 기르는 어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등 수산자원 조성

회 여사(52)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39년 경남고성 출생 △58년 경남고 졸 △63년 서울

대 영문학과 및 행정대학원 졸 △66년 행정고시(4회) 합격 △66년 경제기획원 사무관 △74년 미국 캔사스주립대 경제학박사 △76년 경제기획원 자금계획과장 △78년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84년 동 연구원 부원장 △85년 대한교통학회 부회장 △92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및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94년 해운산업연구원 원장 △97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 조정제 신임 해양수산부장관은 8월6일 오전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도시민의 관광 레저수요를 어촌으로 흡수하고 어항을 어촌지역 경제권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어촌의 다기능화를 추진함으로써 어업인 복지증진 및 살기좋은 어촌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임 조정제 장관은 6일 오전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21세기 일류해양국가 건설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두려움이 앞선다』고 소감을 밝히고, 전임 장관이 지난 1년간 이뤄놓은 튼튼한 골조속에서 내실화에 주력할

조 장관은 또 일류해양국가를 향한 제2의 도약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해양수산정책 방향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타개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항만시설의 획기적인 개선과 아울러 신항만의 조기건설 및 광양항의 활

바다관련산업의 중장기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산파역을 했다. 「지역산업관련분석연구」, 「도시재정개선방안연구」, 「토지세제과제와 정책」, 「도시경영」, 「주택분양제도 및 가격안정의 개선방안」등 다수의 저서가 있으며 등산과 운동을 좋아한다. 부인 배경

21세기 신해양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해양 수산 관련 업무를 통합한 거대한 해양수산호가 출항한 지 1년이 지났다.

서로다른 부서의 통합으로 지난 1년동안은 신설부서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기반 구축과 체제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제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그동안 수산분야에서는 수산업법 하위법령과 공유수면매립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영어자금상환기간연장, 적조 예방대책본부 구성 등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해양수산부의 출범 당시 수산계에서는 성격상 이질적인 요소의 통합 그자체에 대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선뜻 동조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다.

당시 수산계에서 우려했던 것은 정책비중, 조직, 인사 등이 공평하고 객관성있게 이루어져 수산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전문성과 특수성이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부(部) 출범이후 펼쳐진 주요 정책은 1차산업인 수산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하는데 소홀하고 해운 항만위주의 단순한 경제논리를 앞세웠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며, 어항사무소를 비롯한 산하기관 통합합 등 가시적인 면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 그 맹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어항사무소와 어촌지도소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흡수 통합된 것은 지방청의 입지 구축에 도움은 될 지언정 업무성격상 전혀 어울리지 않으며, 업무추진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로인해 자칫 30년 이상 뿌리내려온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희석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것은 2백 30여만 수산인의 희생과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에는 관심이 적은 것으로 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내 총괄부서의 요직을 해운항만청 인맥이 독점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얼핏 부 출범의 동기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겉으로는 화합인사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지만 화합·융화와는 거리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조정제 장관의 취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정제 신임장관이 오늘의 해양수산부 탄생에 산파역을 했고, 부 출범이후에도 산하 연구기관의 장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개발에 참여해 왔으므로, 그 동안 드러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여 조화로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이다. 앞으로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아니라 수산계에 실제로 내재하고 있는 현실을 고도의 테크닉으로 면밀히 관찰하고 진정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본다. 수산계 일각에서 『수산청 당시만도 못하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안되겠기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발연대의 공업입국 수출제일주의로 인한 상대적 소외, 박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어업인의 정서를 신중히 이해하여 이제는 수산정책에 비중을 두어야 할 때가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법 위에 정서있고, 정서 위에 때가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에앞서 거대한 해양수산호가 모든 분야에서 제기능을 다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어 정상적으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인사를 통한 화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오랜시간과 뼈를 깎는 노력, 호양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이와함께 우리나라 수산이 대내외적으로 포위되어 있음을 인식하여 수산정책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신임장관은 취임사에서 『도시민의 관광 레저수요를 어촌으로 흡수하고 어항을 어촌지역 경제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어촌의 다기능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 내용은 그 동안 협회는 물론 수산계에서 꾸준히 주장해 왔던 사항으로서, 우리나라 수산업이 밖으로 각종 해양규제 강화와 더불어 안으로 해양오염, 어업경영여건의 악화, 불법어업 등 대내외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점을 감안, 잡화상식의 정책에서 벗어나 집중전략의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이 벌써 수십 년전부터 어항어촌에 대한 정책을 강화, 수산관련예산의 60% 이상을 어항정비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검증되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21세기의 선진 어항어촌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정책비중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어항을 중심으로 해양레저 관광 해안도로 등 종합적인 기능시설의 정비와 아름다운 해변환경을 창조하여 단순한 어업근거지에서 탈피, 국민적 어항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어항이 도시와 어촌의 만남의 장, 국제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어촌정주권 조성과 지역활성화 및 국토균형개발의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2011년까지 지정어항 640개로 확대 3조7,589억원 투입 基本施設 完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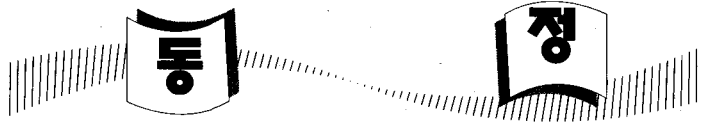
현재 4백15개의 지정어항이 6백40개로 확대, 오는 2011년까지 기본시설이 완공된다.

89억5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5백35개 어항의 기본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와함께 어항중심의 지속적인 어촌종합개발을 추진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개발의 도모와 다목적 어항기능 수행으로 어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어촌생활환경 개선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어항개발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지난해까지 4백15개 지정어항 중 완공어항은 1백5개로 완공률이 25%에 불과한 점을 감안, 오는 2011년까지 3조7천5백

또 어항법 개정으로 어항 개발에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교통·관광·유통 기능 등 다목적 기능을 갖춘 종합어항으로 개발하고 어촌 종합개발사업과도 연계하기로 했다.



싱가폴과 항만정보교환체제 구축

▲조정제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13일 예닝홍 싱가포르 항만청의장의 예방을 받고 부산 신항 및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추진현황 등 우리나라 항만개발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항만정보교환체제를 구축하는 등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 14일에는 18개 소속기관장 및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97 제3회 소속기관장회의를 주재, 18일에는 수산관련 산하단체장회의를 주재.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8월8일 해양수산부 출범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18일에는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 이어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산분야 현안사항 등 협의를 위한 조정제 신임 해양수산부장관 초청 간담회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8월12일부터 16일까지 우리어선 불법납치와 한일어업협정, 배타적 경제수역설정과 관련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안성봉 한국어선협회장은 8월8일 해양수산부 출범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8월1일 광주 서원여고에서 열린 제15회 유네스코 내고장순례 대행진 발대식에 참석, 4일에는 제2회 광주비엔날레 준비상황 설명회에 참석, 이어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임원간담회에 참석, 7일에는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97 한·중·일 학생 국제친선 교통행사에 참석, 14일에는 광주학생독립

운동 유공자후손장학회 회의에 참석, 15일에는 97 문화체육부장관배 전국학생검도대회에 참석, 19일에는 광주 전남 21세기 발전협의회 주관 무등미술대전에 참석.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8월7일 제2회 송원문화재단 장학금수여식에서 중·고·대학생 1백5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8월21일 조신히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세미나에 참석, 28일에는 이스라엘 총리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8월4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임원간담회를 개최.

▲장정언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8월1일 제주도 컨벤션센터 창립총회에 참석, 14일에는 43위령사업 범도민 추진위원회에 참석, 26일에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전국연합회 결성식에 참석.

▲임제호 삼오종합건설주식회사 사장은 8월1일 제주도 컨벤션센터 창립총회에 참석, 25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임원회의에 참석.

▲송재성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8월11일 여수 삼천포 공사현장에 출장.

인사

▲해양수산부 인사 ▲중앙해난심판원장 신길웅(7월30일)

□서기관 승진 △어촌개발국 조강현 △어업진흥국 박규호 △기획관리실 서병규 △해양정책실 민장근 △해운선원국 윤정현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 이강희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하태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영화 <7월25일> △감사관실 박덕만 <8월16일>

□국·과장급 직위승진 및 전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이사관 김종태 △공보관 부이사관 서정호 △항만정책국 이광호 △본부 이사관 김광수 △본부 시설부이사관 이종천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서기관 강무현 △항만정책국 항만유통과장 서기관 원정재 △신항만기획관리실 1담당 시설서기관 정만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시설과장 시설서기관 강범구 △조사시험과장 시설서기관 김정수(직위승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와장 시설서기관 신명(직위승진) <8월8일>

▲수협중앙회 인사 △상무 이용숙 <8월1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홍승용 <8월18일>

변경

▲황대흠씨(우진수산주식회사 사장)는 최근 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89번지 현대4차아파트 101-301호로 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474-5628

회원가입

▲조강현씨(해양수산부 어촌개발국어촌계획과 서기관) ▲김용배씨(부산시청)

외비남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체 ▲주식회사대아건설(사장 이정균) ▲주식회사새건설(사장 조홍제) ▲신우건설주식회사(사장 김철화) ■개인 ▲조강현씨(해양수산부 어촌개발국 어촌계획과) ▲김용배씨(부산시청) ▲안희도씨(한국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

부음

▲안성봉씨(한국어선협회장)가 8월14일 모친상을 당했다. ▲김성훈씨(분회 어항청소선 906호 선장)가 8월19일 부친상을 당했다.



■ 해양수산부 출범 1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8월8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해양 수산관련 단체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사진 왼쪽부터 박종식 수협중앙회장, 조정제 해양수산부장관, 박병권 해양연구소장, 장승우 해양수산부차관, 김용대 항만운송협회장>

제한적최저가낙찰제 대상금액

30억원 미만으로 대폭 축소

제한적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추정가격 58억3천만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또 공사이행보증증권의 보증금률이 계약금액의 40%에서 30%로 하향조정되고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은 50%이상 시공된 공사를 대상으로 반환금액의 1배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대체한 후 현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수의계약대상공사의 규모가 1억원이하로, 지명경쟁대상공사는 2억원이하로 각각 상향조정되고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9일 정부조달업무의 효율성제고와 건설업계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에 고하고 관계기관협의 거쳐 연말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추정가격 58억3천만원 미만인 제한적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규모가 30억원 미만으로 대폭 축소되고 30억원 이상공사에 대해서는 입찰가격과 기술능력 등을 종합심사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현재 시공연대보증인의 입찰 및 계약금액의 10%를 납부하거나 계약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증권 제출 또는 보증시공인 없이 계약금액의 20%만 납부하게 돼있는 계약보증방법중 연대보증인 없이 계약금액의 20%를 납부토록 돼있는 방법을 폐지하고 이행보증증권의 보증금률을 40%에서 30%로 하향조정해 공사이행보증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했다.

이와함께 추정가격 70%미만 저가낙찰공사의 현금차액

보증금을 50%이상 시공된 공사의 경우 반환액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받은 후 현금을 반환토록 하던 것을 1배상당의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2배의 보증서를 납부한 업체에 대해서도 1배 보증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계약보증금을 반드시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돼 있는 제도를 폐지, 앞으로는 낙찰률에 관계없이 모두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납부받은 현금

도 50%이상 시공된 때에는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공사의 수의계약대상을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물품 및 용역의 경우 2천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지명경쟁입찰대상 공사를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탄기공사등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와 기본설계심의 업무를 발주기관에 설치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담당토록 했다.

광양항 등 6개港 신항만 지정

'신항만건설촉진법' 상 첫 지정

부산신항과 광양항, 광택항등 6개항만이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신항만으로 처음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6개항만의 경우 그동안 국토이용관리법등 개별법에 의해 사안별로 저축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신항만건설촉진법만 적용받으면 다른법률이 모두 의제처리돼 항만건설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정부의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재정원장관)에서 신

항만에정지역지정 건이 통과됨에 따라 부산신항을 비롯 광양항, 목포신외항, 포항영일만신항, 보령신항등 6개항만을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신항만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산신항건설등 6개 사업은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등 25개 개별법에 의해 저축을 받지 않고 앞으로는 신항만건설촉진법만 거치면 모든 개별법에 의한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크게 활성화될 것

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중앙설계심의위원회와 교통영향심의회, 건축심의위에서 심의를 받도록 돼있던 것이 앞으로는 해양수산부의 자체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만 거치면 된다.

이와함께 이들 지역에서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민간이나 관의 토지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석, 자갈(모래 포함)채취 등의 행위는 시·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야만 할 수 있게 제한되며 관계법령에 의해 이미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건축등의 사업에 착수했을 경우는 관계 시·도에 신고를 해야 사업추진이 가능케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엔 지정

한 6개항에 이어 울산신항과 새만금신항, 인천북항건설사업도 신항만으로 지정키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며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내달 중 신항만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어장준설 적조예방 사업등 어장정화 내년부터 본격화

연근해어장을 살리기 위한 어장정화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에 2백억원의 예산을 투입, 어장준설과 적조방제 황토 살포 등 대대적인 어장정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오염이 심해 어업생산성이 크게 떨어진 해역 2만3천ha에 대해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청소작업과 해저에 가라앉은 그물등 각종 어구 등을 건져내는 작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시·도와 각각 50%의 사업비를 분담해 9만2천톤의 황토를 구입, 적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연안 해역에 살포하는 등 내년 가을부터 적조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 해양수산부는 국고 지원을 통해 시·도가 어장정화에 동원하는 청소선 4개조 13척을 새로 운영,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어장 정화사업을 시행토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어장

정화사업을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총 71만8천ha의 어장에 대해 서식환경을 되살리겠다는 장기계획도 마련해 놓고 있다.

북한 항만개발 참여 기본계획 수립 예정

정부가 통일에 대비, 북한 항만개발 참여나 남북직항로 개설등 한반도의 항만을 유기적으로 활용키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북한의 노후 항만개발사업 참여를 남북협력 우선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낱갈 방침이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통일에 대비, 북한항만개발 참여나 항만운영협력등 한반도 전체항만의 합리적인 기능분담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반도 통합해운 및 항만을 효율적으로 활용키 위한 전국항만기본계획 수립을 강구기로 했다.

多目的 종합漁港 어촌 定住空間 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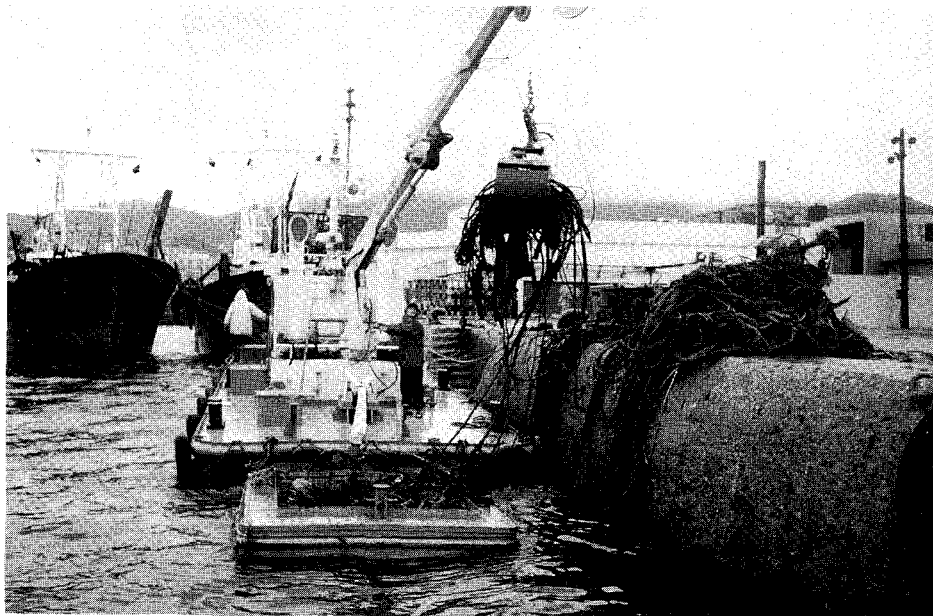
해양수산부 '21세기 해양수산 비전' 발표

해양수산부는 21세기 일류 해양강국 건설을 조기달성하기 위해 「21세기 해양수산비전」을 수립,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부(部) 신설로 조성된 통합해양행정 기반을 바탕으로 해양수산정책 기틀을 구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21세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해양수산정책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21세기 해양수산비전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히고 해양수산행정의 기본지침이 될 동 계획의 집행을 통해 국민들의 해양사상고취는 물론 세계 해양강국 건설의 기반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1세기 해양수산비전에는 21세기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5대 정책과제, 중점추진사책 및 권역별 개발구상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1백26개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과 투자소요액, 인력 확보방안, 법·제도정비 계획, 규제완화 계획 등의 실천대책이 포함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계획을 해양수산의 발전 잠재력과 경쟁력에 기초한 2011년까지의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명실공히 21세기 해양수산 정책의 기본지침으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차질없는 추진



■ 상반기 청소실적 221.3톤 한국어항협회가 관리 운영하는 어항청소선 7척이 올해 상반기 동안 전국 62개 어항에서 221.3톤의 침전·부유물 등 오폐물을 수거했다.

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 중 수산관련 내용으로는 연근해어업을 자원관리형어업으로 전환하고 환경친화적인 양식어업의 획기적 육성, 원양어업의 전략적 육성 등 수산업구조의 전면 재조정과 수산물 유통체제의 혁신, 수산가공업의 육성, 수산물 수출입 관리체계개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촌종합개발,

경쟁력 있는 어업경영 지원 등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풍요로운 선진어촌 건설로 요약된다.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촌종합개발을 위해서는 그동안 확실적인 개발추진으로 다양한 어항수요를 충족하기 곤란하며 생활기초시설이 미비하여 어촌의 생활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 앞으로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어촌 및 도

서의 종합개발로 정주생활공간을 완비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지정어항을 4백15개에서 6백40개로 확대 지정·개발하고 유통·가공·교통 등 다목적 기능을 갖춘 종합어항으로 개발하는 한편 전국연안의 어촌을 2백2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어선계류 어촌환경시설 등 권역별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개발조정연안은 관광시설 설치 등 지역특화개발위주로 추진하며 보전연안은 어업배후 도시개발 등 한정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어업질서 확립 대책회의 개최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관계 기관대책회의가 지난 8일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해양수산부, 내무부, 법무부 등 7개 부처와 부산, 전남 등 10개 연안 시·도 관계관이 참석한

환경친화적 '테마관광어촌' 개발

·2011년까지 2,430억원 투입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촌 관광단지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도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어촌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오는 2001년까지 19개, 2011년까지 65개 등 모두 84개소에 총 2천4백30억원을 투입, 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까지 민박·횃집 등에 1억원씩 소규모 단위사업을 지원하였으나 투자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앞으로는 국민소득 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급증하는 도시민의 레저수요를 어촌으로 흡수하여 어업

인의 어업의 소득증대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촌 환경을 개선하고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며 국민들에게 해양문화와의 접촉기회 부여 및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체험어장, 민속문화축제, 어촌민속전시관을 중심으로한 체험·문화어촌과 낚시터, 해양레포츠, 종합레저시설을 중심으로한 관광·휴양어촌 등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테마관광어촌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가운데 열렸다. 이번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에서는 생계형 소규모 불법어업자에 대해 적당 1~3천만원을 용자, 지원해 연말까지 1천척을 합법어업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상습적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

또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수시로 일제단속기간을 설정하는 한편 우리수역을 침범 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나포조치 등 강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남해상에 해양신도시 건설

21세기 한반도 세계해운센터화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산업을 국가발전 선도사업으로 집중 육성키 위해 항만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한반도의 세계해운센터화 및 동아시아 물류기지화를 조기 달성키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오는 2011년까지 해운항만산업을 국가발전 선도사업으로 육성키 위해 현재 GNP 대비 0.5%에 불과한 해양분야 투자비율을 1.1%로 확대, 부족한 항만시설확충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시설확보율을 현재의 65.3%에서 오는 2011년까지 1백%까지 끌어올려 연간 9억백만톤의 화물처리능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국내 항만을 동아시아 물류중심기지로 구축하기 위해 부산, 광양항에 오는 2011년까지

대형 컨테이너부두 68선석을 확보해 연간 1천4백23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해양공간의 수요증대에 부응해 해양구조물 핵심기반 기술 개발을 통한 첨단 해양도시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 남해안 청정해역등에 21세기 해양시대를 상징하는 새로운 개념의 해양신도시를 인공섬 건설의 방식으로 확보하고 해양과 육지를 연계하는 해양도시도 건설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의 항만이 연계수송망이나 항만운영정보망, 배후물류기지 부족으로 운송시간, 수송비용 등 물류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수송망이나 물류망 등을 갖춘 제3세대형 종합물류기지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고 항만~배후지간 연계수송망 구축과 내륙물류기지 건설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沿岸資源 효율적개발 管理위해 연안역 統合管理體制 구축키로

해양수산부는 오는 99년까지 국가연안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육역과 해양의 연계관리와 지속적인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연안자원의 합리적 분배 이용 실현과 연안거주환경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업, 수산업, 레크리

이션 등 다양한 활동이 경합 상충함에도 9개 부처 50여개의 개별법에 의해 분산·관리되어 무질서하게 개발되는 연안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연안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분야별 통합적으로 조정·계획하는 통합관리체제의 도입이 필요한 실

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오는 98년까지 연안역실태조사 및 연안역통합관리법을 제정,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와함께 연안역을 개발정비연안과 개발조정연안, 보전연안 등으로 잠정구분해 개발정비연안은 공유수면매립, 산업입지 및

“활력있고 쾌적한 어항어촌 건설”

(주)대영엔지니어링

代表理事	李 桓 範
技術士(港灣 및 海岸)	
副社長	金 三 善
技術士(港灣 및 海岸)	
專務理事	尹 在 鉦
技術士(港灣 및 海岸)	
專務理事	鄭 大 演
技術士(港灣 및 海岸)	

主要業種

專門技術用役業

- 國內外 港灣의 開發, 整備 및 建設을 爲한 設計, 調査, 實施設計 및 施工監理, 技術用役
- 1, 2, 3種 漁港의 開發, 施設計劃, 調査, 實施設計, 技術用役 및 其他 技術諮問
- 一般土木 建設事業의 計劃 調査, 設計 및 施工監理 技術用役
- 建設工事의 先進技術導入, 新工法開發研究, 技術指導 및 諮問用役
- 建設事業에 隨伴된 各種 機資材의 調達에 關한 技術用役
- 造船 施設 設計



변비

걷기·목욕은 장기능 활성화 생감자 복용이 특효

최근 사회가 복잡해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식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변비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변비는 요통과 더불어 현대인의 고민의 쌍벽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만큼 변비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일반적으로 대변을 2일 이상 못보는 것을 변비라고 한다.

2일에 한 번 변을 보더라도 자기 몸이 이상하거나, 매일 또는 하루에 2~3회 대변을 보더라도 시원치 않으면 변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거친 피부, 여드름, 어깨결림, 변비 등은 더러워진 장과 관련이 있다. 장내 세균이 밸런스가 깨지면 소화 흡수된 단백질이나 지방에 해로운 균이 작용하여 신체에 유해한 물질을 만들어 낸다. 대장이나 항문병의 원인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심지어 고지방, 저섬유질의 식사 패턴은 대장염의 원인이 된다는 발표가 속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첫번째 원인은 식물성 섬유질의 섭취부족에 있다. 야채나 과일, 해초류, 콩 종류를 잘 챙겨 먹고 있는지 식생활을 점검해 본다. 식물성 섬유질에는 장 내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부풀려서 변의 양을 늘리는 기능이 있다. 장의 벽은 일정량 이상의 변이 모이지 않으면 자극을 받지 않으므로 연동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1일 20g이상의 식물성 섬유질을 섭취해야 한다.

두번째는 수분부족이다. 수분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져 배변이 곤란하게 된다. 몸에

이상이 없는 한 물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몸이 붓지 않으므로 가능한 많이 마시도록 한다. 또 변의를 느꼈을 때 참으면 수분이 없어져서 변이 지나치게 딱딱해진다. 그러므로 변은 절대 참아서는 안된다.

세번째는 무리한 다이어트는 변비의 원인이 된다. 극단적으로 식사량을 줄이면 변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음식물의 가스는 조금씩 장내에 머물러 있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저칼로리, 고섬유질의 야채나 밥을 적절히 먹어 변비가 되지 않도록 할 일이다.

장을 깨끗하게 하는 전신운동으로는 걷기운동이 최고다. 많이 걷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대사활동도 왕성해진다. 따라서 장기능도 자극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해로운 균은 점점 없어지고 쾌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신진대사를 높여 주는 목욕으로도 장기능이 활성화된다. 피부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얘기이다.

목욕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가 있지만 장내 세균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식이요법으로는 섬유질이 많은 고구마·우엉·연근·한천 등을 상복한다. 그러나 위가 나쁜 사람은 섬유질이 많은 것을 피해야 하니 과일을 자주 먹거나 꿀을 복용해도 좋으며 당근과 사과를 갈아서 한 컵씩 공복에 마시면 더욱 좋다.

특히 생감자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로 찢거나 갈아서 만든 즙을 한 번에 30~50ml씩 하루에 세 번 2주일만 먹으면 낫지 않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어·항·교·실

(10)

第2章 浚渫工

토사 발생

① 어항시설용지(보조공공용지) 조성에 의한 처리의 가부	Yes →	어항시설용지의 매립제로 한다.
↓No		
② 어항관리시설용지(비보조공공용지) 조성에 의한 처리의 가부	Yes →	어항관리시설용지의 매립제로 한다.
↓No		
③ 어항환경정비시설용지등조성에 의한 처리의 가부	Yes →	어항환경정비시설용지 등 매립제로 한다.
↓No		
④ 인공양빈상 또는 어장조성에 의한 처리의 가부	Yes →	인공양빈공 또는 어장조성제로 한다.
↓No		
⑤ 어항관리시설용지(단독비공공용지) 조성에 의한 처리의 가부	Yes →	어항관리시설용지매립제로 한다.
↓No		
⑥ 다른 공공사업에의 유용에 의한 처리의 가부	Yes →	다른 공공사업에 유용제로 한다.
↓No		
⑦ 어항관리자단독용지조성(비수산비공공용지)에 의한 처리의 가부	Yes →	어항관리자단독용지매립제로 한다.
↓No		
⑧ 앞바다에 버리는데 따른 처리의 가부 (경비가 적다)	Yes →	앞바다에 버린다.
(경비가 많다)	Yes →	잔토처리호안을 건설하여 매립한다.

주) 이 표는 어항관계사업의 경우이다.

그림 2.1.7 발생토사 처리방법의 결정순서

2.1.5 준설토의 처리

준설토, 굴착토 등은 예전에는 「앞바다에 내다버리는」 형태로 처리된 예가 많았으나 「해양오염방지법」 등에 의한 규제,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등으로 말미암아 점차 「앞바다에 내다버리는」 형태의 토사처리가 곤란한 실정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시에 준설 등의 토량과 매립성토에 소요되는 토량이 균형을 이루어 잔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

발생토사 처리방법의 일반적 결정순서는 그림 2.1.7에 나타난 순서도에 따르지만 실제의 결정에 있어서는 각 처리방법의 비용을 산정하는 동시에 종합판단에 의하여 결정한다.

2.2 펌프준설

2.2.1. 개요

(1) 펌프식 준설선

펌프준설이란 펌프식 준설선을 사용하는 준설로 비교적 소규모 공사에서부터 대량의 준설이나 매립을 하는 대규모공사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타 공법에 비하여 시간적, 경제적으로 유용하기 때문에 종래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다.

펌프식 준설선은 자력으로 항행할 수 있는 자항식과 비항식으로 나눌 수 있으나, 자항펌프식 준설선에 의한 준설이나 매립은 극히 특수한 사

례이고 또 국내에 있는 자항식 펌프선의 수가 많지않아 비항펌프식 준설선(이하 「펌프준설선」이라 한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종류는 주펌프 원동기 마력이 50PS정도의 소형선에서 18,000~20,000PS의 대형선까지 있다. 이것을 원동기 종류별로 보면 아래

- a. 전동식 b. 디젤식
- c. 디젤일렉트릭식 d. 가스터빈식
- e. 스태터빈식 f. 터빈일렉트릭식

펌프준설선의 형식을 표 2.2.1에 제시한다.

표 2.2.1. 펌프선의 형식

펌프준설선의 형식	약기호
750PS 전동펌프준설선	E750
2000PS 디젤펌프준설선	D2000
4000PS 스태터빈펌프준설선	ST4000
8000PS 디젤일렉트릭펌프준설선	DE8000
9000PS 스태터빈일렉트릭펌프준설선	STE9000
9000PS 가스터빈일렉트릭펌프준설선	GTE9000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 창설이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 여성 변호사 이태영 박사에 의해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인간의 존엄성과 만민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불행한 자, 약자 등 빈민하는 이웃의 편에서 서서 이들의 인권옹호에 필요한 모든 법률구조사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인권을 회복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법률구조법인

상담소는 법률구조법에 의거하여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한 후 현재까지 무료로 가정문제에 관한 법률상담과 화해조정 및 소송구조 등 법률구조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다. 상담소의 기구와 조직

서울 여의도에 본부를 두고 서울시 시정종합정보센터에 1개의 출장소를 비롯하여 전국 28개 지부와 6개 해외지부를 두고 있다. 본부에는 상담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통할하는 소장과 그 밑에 소송구조, 지부관리, 출판·홍보, 기획관리, 교육기능을 맡은 각 기구가 있다.

2. 법률상담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사건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안내 (上)

약자의 편에서 인권옹호에 필요한 법률구조사업 무료제공

하고 있다. 상담방법은

○ 면접상담 : 상담소에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의 호소를 들어 주고 해결의 길을 함께 모색해 보는 면접상담을 주로 하고 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은 본부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이루어지며 자원봉사 변호사들이 상담을 맡아주고 있다.

○ 서신 및 전화상담 : 편지로 물어오는 경우, 상세한 회답을 해주며 간단한 서류와 절차 등에 관한 문의는 전화로도 응답을 해 주고 있다.

○ 지상상담 : 신문이나 잡지에 고정을 통하여 투고해 오는 법률에 관한 질문에 응답해 주고 있다.

○ 순회상담 : 상담소에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순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3. 화해조정과 무료대서

화해조정은 부부간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상담소를 찾아왔을 때 곧바로 법에 의한 강제적인 해결에 맡겨 버리기보다는 당사자와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대화를 나누어 봄으로써 서로의 입장 차이를 줄이고 양보하여 윈윈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상담소는 분쟁 해결의 최우선으로 화해권유 및 조정성립을 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또한 상담소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대비비용도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단한 소송 관련 서류를 무료로 작성해주는 일도 하고 있다.

4. 소송구조

상담결과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잘 몰라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소송구조를 통해 구제해 주고 있다.

가. 소송구조 대상자

- 생활보호법이 정한 요보호자
- 소송을 위한 비용 지출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소송구조를 제공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소송구조 절차

소송구조신청은 상담소 소정의 법률구조신청서에 구비서류(소정양식의 소송구조 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통반장의 확인서, 소송을 제기하는 근거가 되는 각종 증거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소송사건이 종료한 후 상담소에서 지출한 소송비용과 그 사건의 승소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받고 있다.

그러나 의뢰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실제 상담소에서 그 소송비용을 상환받는 예는 아주 드물다.

5. 예방교육 활동

법률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소는 가정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의 예방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방교육사업을 하고 있다

○ 목욕 가족법 강좌

매주 목요일마다 가족법의 전 과정(약혼, 혼인, 이혼, 친자, 양자, 상속, 유언, 호적)을 강의하고 있다.

○ 재산법 강좌

가정의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산의 보호와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매회 3개월 과정으로 실시되고 있다.

○ 세법 강좌

각종 세법에 관한 지식의 필요에 따라 세법 강좌를 개설하였다. 소득세, 양도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모든 세법 내용을 매회 2개월 과정으로 열고 있다.

○ 시민 공개강좌

성숙한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르는 과정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무료로 공개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

양한 주제 강연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 어머니 학교

가정불화의 요인중의 하나인 고부갈등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위한 재교육장으로서 문을 열어 4개월 과정으로 교육되고 있다.

○ 할머니, 할아버지 학교

1984년 노인복지 상담실 운영과 더불어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강좌를 개설, 4개월 과정으로 열리고 있다.

○ 거리기 교실

남편을 사별한 여성이나 이혼으로 혼자가 된 여성을 위하여 강좌 개설을 하였다. 남편에게 의존했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는 모임으로 3개월 과정이다.

○ 어린이 글짓기 교실

어린이의 정서 함양과 사고력 배양을 위한 국민학교 대상의 문학 교실이다. 매해 여름과 겨울 방학에 특강으로 진행되고 있다.

○ 서예교실 : 매주 토요일에 한글 한문 붓글씨 감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 혼인준비교실 : 결혼을 앞둔 남녀에게 결혼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자세를 준비시키는 강좌이다.

○ 법률임상심습 : 여성 법학도의 법률구조사업에의 참여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비롯하여 각 대학의 사회사업학과, 심리학과와 학생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생 활 정 보

생 활 정 보